

남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관련 변인 연구

Correlates of Prosocial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해운대여자중학교

교 사 이 승 미*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 경 님**

Heaundae girls middle school

Teacher : Lee, Seung-Mi

Dept. of Home-Management, Donga Univ.

Professor : Lee, Kyung-Nim

<Abstract>

The variables studied in relation to adolescents' prosocial behaviors were grade, prosocial moral reasoning, empathy, self-esteem, parental prosocial behaviors, support and marital conflict, social economic status, peer prosocial behaviors and support, teacher support,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The sample consisted of 837 seventh and tenth grade adolescents. Statistics and methods us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Cronbach's alpha, frequency, percentage,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Several major results were found from the analysis. First, female students had more prosocial behaviors than male students. Second, male and female students' prosocial behaviors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grade, prosocial moral reasoning, empathy, self-esteem, parental and peer prosocial behaviors and support, teacher support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However, female students' prosocial behavior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arental marital conflict. Third, important variables predicting male and female students' prosocial behaviors were empathy, peer prosocial behaviors and parental prosocial behaviors. Important variables predicting male students' prosocial behaviors were teacher support and prosocial moral reasoning. On the other hand, the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female students' prosocial behaviors was self-esteem.

▲주요어(Key Words) :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s), 친사회적 도덕추론(prosocial moral reasoning), 공감(empathy), 부모와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parental and peer prosocial behaviors), 부모, 친구와 교사 지지(parental, peer and teacher support)

I. 서 론

오늘날 우리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와 기계적 매체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직접적으로 경

험하는 사회·문화적 활동이 감소되어 소수의 한정적인 인간관계만을 형성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의 청소년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성원 수의 감소, 외동아의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많은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학교교육 체제 하에 더욱 경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개인이 되어 대인관계의 어려움 및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

* 주 저 자 : 이 승 미(E-mail : 99-mercury@hanmail.net)

**교신저자 : 이 경 님(E-mail : knlee@dau.ac.kr)

하고 있다. 이들은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도덕적·정서적 성장과 발달이 저해되며 나아가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 및 대인관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자기중심적이거나 배타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의 증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이란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은 '돕기, 나누기, 위로하기, 협동하기 등의 좁은 범위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관심보이기, 배려하기 등의 좀더 넓은 범주에 이르기까지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는 의도를 가진 자발적인 행동'이다(Eisenberg, 1983).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수용되고 인기가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바람직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존경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나 집단의 안정과 행복에 기여하게 된다(송명자, 1995). 그러므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검토하는 연구는 의의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친사회적 행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관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체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김태운, 2005; Bar-Tal, 1976)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친구에게 더 관대하고 협동적인 행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밝혀지고 있다(이순복, 1993; White, 1972).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의 성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준수, 2000; Bar-Tal, Raviv & Goldberg, 1982)하고 있어 선행연구 간의 결과들이 불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히 성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많고 적음의 차이를 밝히고 있을 뿐 성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의 관련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정희원·김경연, 1998)는 미흡하였다. 즉 친사회적 행동의 관련변인이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Radke-Yarrow et al., 1983) 이에 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은 개인 변인과 가족, 친구 및 학교를 포함하는 환경적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Vasta et al., 2004). 먼저 아동과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적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친사회적 행동은 4~6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3세경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유아기에서 청소년 초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달한다고 밝혀지고 있다(이옥경·이순형, 1996; Underwood

& Moore, 1982). 그런데 청소년기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김태운, 2005; 하영희, 2001)도 있으나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이경주, 2002; Eisenberg & Hand, 1979)도 있어 선행연구 간의 결과들이 불일치하고 있다.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 중 중요한 인지적 요인으로 친사회적 도덕추론을 들 수 있다(Shaffer, 1999; Vasta et al., 2004).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인지적 추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도덕추론수준이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리라 본다(Eisenberg, 1982; Krebs & Van Hestern, 1994). 이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또래로부터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고 평가 되었으며(Carlo et al., 1996)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송종란, 1999). 또한 도덕추론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도움을 꼭 필요로 하면 도와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Eisenberg et al., 1991). 이처럼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련성이 밝혀지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실제로 그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하영희, 2001; Eisenberg, 1986).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기여하는 개인의 중요한 정의적 요인은 공감이다(Shaffer, 1999; Vasta et al., 2004). 공감이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여 경험하는 능력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Hoffman, 1981). 친사회적 행동과 공감과의 관련 연구들은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경주, 2002; Eisenberg & Fabes, 1998). 또한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령별 분석을 보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후기 이후 아동과 청소년 및 성인들의 경우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어(Underwood & Moore, 1982)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의 선행요인임을 보여 주고 있다. 개인의 또 다른 중요한 정의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하영희·Edwards, 2004)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이 또래나 타인에게도 배려하며 도움이 되는 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하고 있다.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가족 변인이다.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은

관찰과 모방을 통하여 학습되므로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모델이 된다. 즉,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모델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관찰자인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이 많아진다(Eron & Huesmann, 1986). 이를 검증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들이 친사회적 행동수준이 높았으며(김경연·하영희, 1998)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가 많을수록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데 일치되고 있다(장지우, 2005; Waxler, 1979). 또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변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지지 및 부모의 결혼갈등을 들 수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친사회적 행동과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는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도 더 많다(정희원·김경연, 1998)고 하였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장영애, 1986; Eisenberg & Mussen, 1991)되고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부모로부터 존중되며 사랑과 인정을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바람직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은 타인을 배려하고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많이 보일 것이다. 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장지우, 2005; Eisenberg, 1992). 그런데 부모의 결혼갈등은 자녀의 불안, 우울 등의 내재적인 심리적 문제와 공격, 비행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권영욱·이정덕, 1999; Harold & Conger, 1997) 부모의 결혼갈등이 청소년의 바람직한 행동에 위협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과 부모의 부부갈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배우자간에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임형아, 2004) 부모의 결혼갈등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추론된다.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의 욕구 증대와 함께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되며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발달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 변인으로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과 친구지지를 들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은 모델링과 관찰에 의하여 학습 되는데, 모델의 효과는 자신에게 영향력이 클수록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청소년기의 행동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검증한 연구들에 의하면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이 많다고 지각한 청소년이 친사회적 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지우, 2005; 하영희, 2001). 또한 친구로부터의 정서

적 지지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행동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장지우, 2005; 하영희·Edwards, 2004).

학교는 청소년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교사지지와 학교생활만족도는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유추된다. 이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생활만족도와 친사회적 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하영희, 2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경희, 1995).

이와 같이 청소년의 성별, 학년, 친사회적 도덕추론, 공감, 자이존중감의 개인 변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부모지지, 부모의 결혼갈등의 가족 변인,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친구지지의 친구 변인, 교사지지,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적의 학교 변인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의 영향이 각각 개별적으로 검증되었으나 이들 변인을 모두 함께 고려한 연구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학교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은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있으나 관련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성별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즉,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과 그 중요성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도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이 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를 포함한 관련 변인간의 관계와 이들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성별에 따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관련 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남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개인 변인(학년, 친사회적 도덕추론, 공감, 자이존중감), 가족 변인(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부모지지, 부모의 결혼갈등), 친구 변인(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친구지지)과 학교 변인(교사지지,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적)과의 관

계는 어떠한가?

3. 남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모두 83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중학생이 367명(43.8%), 고등학생이 470명(56.2%)이고, 남학생이 401명(47.9%), 여학생이 436명(52.1%)이었다. 연구대상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 연령은 41~50세가 706명(84.3%)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연령은 41~50세가 675명(80.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부모 연령은 41~50세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대학졸업 이상이 405명(4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이 320명(38.2%)이었으며,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406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졸업 이상이 313명(37.8%)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상공업·서비스업이 288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기술직이 239명(28.7%)이었으며, 어머니는 취업무 416명(49.7%), 취업유 401명(47.9%)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301만원 이상이 329명(39.3%), 201~300만원이 290명(34.6%), 101~200만원이 256명(18.6%)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친사회적 행동 척도와 개인 변인, 가족 변인, 친구 변인, 학교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및 일반적 배경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친사회적 행동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경연과 하영희(1998)의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척도를 기초로 하고 이숙정(2001)의 척도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척도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위해 아동심리 전공 교수와 현직교사 3인에게 내용을 검토 받은 후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제외하고 적절하지 않은 문항은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협력하기, 나누기, 위로하기 등의 내용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61로 나타났다.

2) 개인 변인

(1) 친사회적 도덕추론

청소년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을 측정하기 위해 Eisenberg-Berg(1979a)가 개발한 친사회적 도덕갈등 상황을 토대로 김유선(1998) 및 이옥경(2002)의 도덕딜레마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서미정(2006)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제를 사용하였다. 친사회적 도덕추론과제는 3가지 상황에 대해 주인공이 상대를 도와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적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자료는 Eisenberg-Berg(1979a, 1979b)의 분류기준 및 채점기준에 따라 분석되었다. 응답은 10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다시 5수준으로 나누어 한 상황당 0점에서 5점으로 평정하였으며, 한 명의 응답자가 받을 수 있는 친사회적 도덕추론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응답은 평정자간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Eisenberg-Berg(1979a)의 분류기준을 숙지한 아동학 전공자 1명과 본 연구자가 분류·채점하였으며, 평정자간의 신뢰도는 .906으로 나타났다.

(2) 공감

청소년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의 대인관계 반응척도(IRI)를 기초로 이경주(2002)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12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693으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는 10점에서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80으로 나타났다.

3) 가족 변인

(1) 사회경제적 지위

청소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경진(2000)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기준을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하위요인 측정치를 합산하여 표준점수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경연과 하영희(1998)의 친사회적 행동 척도를 기초로 하고 이숙정(2001)의 척도를 참고하여 부모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80으로 나타났다.

(3) 부모지지

부모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 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 SSAS)를 한미현(1996)이 수정·보완한 척도 중 가족용을 부모용으로 수정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8점에서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04로 나타났다.

(4) 부모의 결혼갈등

부모의 결혼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Grych 등(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 CIPC)를 권영옥과 이정덕(1996)이 번안한 질문지를 박민정(2002)이 수정·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7점에 2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결혼갈등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37로 나타났다.

4) 친구 변인

(1)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경연과 하영희(1998)의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척도를 기초로 하고 이숙정(2001)의 척도를 참고하여 친구용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협력하기, 나누기, 위로하기, 돕기 등의 내용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98로 나타났다.

(2) 친구지지

친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평가 도구를 한미현(1996)이 수정·보완한 척도 중 친구용을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는 8점부터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23으로 나타났다.

5) 학교 변인

(1) 교사지지

교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평가 도구를 한미현(1996)이 수정·보완한 척도 중 교사용을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는 8점부터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90으로 나타났다.

(2)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현정(1997)과 권윤아(1997)의 척도를 참고하여 김희화(1998)가 구성한 학교생활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는 5점부터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5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2006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먼저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와 연구절차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 시내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 각 측정도구의 문항은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절차상의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2007년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5개교를 임의 표집하여 중학교 1학년 15학급, 고등학교 1학년 15학급의 총 30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과목 담당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질문지가 배부되었고, 그 자리에서 회수되었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837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12.0으로 통계처리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청소년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은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검토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의 성에 따른 차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 점수에 대한 성별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점수는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사회적 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남녀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학년, 친사회적 도덕추론, 공감, 자아존중감의 개인 변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친사회적 행동, 지지 및 결혼갈등의 가족 변인,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과 지지의 친구변인, 교사지지,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적의 학교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학년, 친사회적 도덕추론, 공감,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고등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 보다,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수준, 공감 및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많이 나타났다. 또한 <표 2>에 의하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부모지지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부모의 결혼갈등과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이 많을수록,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많이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결혼갈등이 적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은 부모의 결혼갈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2>에 의하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친구의 지지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이 많을수록,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2>에 의하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교사지지, 학교생활만족도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학업성적과 정적상관이 나타

<표 1> 성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t-검증 결과

친사회적행동	남학생	여학생	t값
	M(SD)	M(SD)	
	61.87(10.28)	66.81(9.51)	-7.16***

***p<.001

<표 2> 남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개인 변인					가족 변인			친구 변인		학교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남학생	.21***	.25***	.55***	.29***	.15**	.42***	.27***	-.09	.55***	.36***	.22***	.28***	.10
여학생	.22***	.32***	.53***	.34***	.17***	.46***	.23***	-.23***	.53***	.32***	.33***	.23***	.16**

p<.01, *p<.001

1. 학년 2. 친사회적 도덕추론 3. 공감 4. 자아존중감 5. 사회경제적 지위 6.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7. 부모지지 8. 부모결혼갈등 9.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10. 친구지지 11. 교사지지 12. 학교생활만족도 13. 학업성적

났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많이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남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은 친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녀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 가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와 전반적인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각 독립변인 간 상관계수가 남학생은 .45, 여학생은 .5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개인 변인, 가족 변인, 친구 변인, 학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해 남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감($\beta=.33, p<.001$),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beta=.27, p<.001$),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beta=.18, p<.001$), 교사지지($\beta=.12, p<.01$), 친사회적 도덕추론($\beta=.10, p<.05$)이 남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변인들은 남학생의 친사회적 행

<표 3>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남	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38***	.22***	.11*	.25***	.16**	.21***	-.08	.08	.13**	.13**	-.03	.05
2		.05		.21***	.04	.08	.22***	.21***	-.12*	.28***	.12*	.11*	.09	.13**
3		.35***	.15**		.17***	.14**	.29***	.20***	-.09	.38***	.35***	.22***	.17***	.15**
4		.11*	.07	.22***		.26***	.16**	.38***	-.23***	.27***	.35***	.32***	.38***	.23***
5		.11*	.06	.09	.16**		.11*	.17**	-.16**	.07	.29***	.19***	.14**	.30***
6		.15**	.18***	.29***	.25***	.15**		.40***	-.30***	.37***	.18***	.28***	.10*	.10*
7		.01	.15**	.23***	.31***	.20***	.42***		-.47***	.25***	.34***	.25***	.30***	.16***
8		-.01	-.08	-.01	-.20***	.29***	-.22***	-.43***		-.18***	-.22***	-.14**	-.20***	.01
9		.15**	.26***	.39***	.17**	.15**	.34***	.18***	-.10		.46***	.28***	.32***	.10*
10		.03	.14**	.23***	.35***	.13*	.28***	.28***	-.15**	.43***		.22***	.46***	.152***
11		-.22***	.03	.13*	.13**	.02	.04	.26***	-.07	.16**	.20***		.27***	.24***
12		-.01	.04	.13**	.41***	.18***	.15**	.33***	-.20***	.21***	.38***	.33***		.22***
13		.06	-.08	.04	.22***	.19***	-.02	.07	-.22**	.02	.08	.17**	.23***	

*p<.05, **p<.01, ***p<.001

1.학년 2. 친사회적 도덕추론 3. 공감 4. 자아존중감 5. 사회경제적 지위 6.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7. 부모지지 8. 부모의 결혼갈등 9.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10. 친구지지 11. 교사지지 12. 학교생활만족도 13. 학업성적

<표 4>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

변인	남학생		여학생		
	B	β	B	β	
개인 변인	학 년	.61	.03	1.10	.06
	친사회적도덕추론	.36	.10*	.22	.06
	공 감	.52	.33***	.52	.30***
	자아존중감	.15	.07	.41	.20***
가족변인	사회경제적 지위	.23	.05	.02	.01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29	.18***	.39	.21***
	부모지지	-.10	-.06	-.09	-.06
	부모의 결혼갈등	.11	.05	-.08	-.04
친구변인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22	.27***	.24	.27***
	친구지지	.14	.08	-.03	-.01
학교변인	교사지지	.21	.12**	.06	.05
	학교생활만족도	.22	.07	.04	.01
	학업성적	.23	.04	.12	.02
상 수		-3.00		1.77	
R ²		.52		.50	
F		27.60***		27.51***	

*p<.05, **p<.01, ***p<.001

가변인처리 : 중학교 1학년=0, 고등학교 1학년=1

동의 52%를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남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개인 변인인 공감이가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이며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교사지지, 친사회적 도덕추론 순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 4>에 의해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공감($\beta = .30, p < .001$),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beta = .27, p < .001$),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beta = .21, p < .001$), 자아존중감($\beta = .20, p < .001$)이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변인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50%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개인 변인인 공감이가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이며,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자아존중감 순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성에 따른 차이와 친사회적 행동과 개인(학년, 친사회적 도덕추론, 공감, 자아존중감), 가족(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부모지지, 부모의 결혼갈등), 친구(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친구지지) 및 학교(교사지지,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적) 변인과의 관계 및 이들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성별을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은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사회적 행동이 많다는 연구결과(김태운, 2005; 하영희, 2001)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이경주, 2002; 한준수 2000; Bar-Tal et al., 1982)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의 결론은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결과가 일반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변인들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모두 학년, 친사회적 도덕추론, 공감, 자아존중감,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부모지지, 부부갈등, 사회경제적 지위,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친구지지 및 교사지지, 학교생활만족도가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런데 부모의 결혼갈등과 학업성적은 여학생의 경우에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관련변인들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고등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결과(김태운, 2005; 장지우, 2005; Bar-Tal, 1976)와 일치하였다. 그런데 연령(이경주, 2002; Eisenberg & Hand, 1979)간 친사회적 행동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어 청소년기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결론을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본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친사회적 도덕추론 수준이 높을수록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친사회적 도덕추론 수준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다는 연구(송종관, 1999; Eisenberg & Miller, 1987)와 일치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탈중심화되고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사고수준이 점차적으로 더 높아지므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수준도 높아지며, 이는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공감을 많이 할수록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을 많이 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다는 연구(이경주, 2002; Eisenberg & Fabes, 1998)와 일치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는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실제로 더 많이 실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친사회적 행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공감이 높을 때 더욱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하영희 · Edwards, 2004; Paulhus, 1992)와 일치하였다. 이는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높은 청소년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움이 되는 행동의 모범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이 많을수록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은 관찰과 모델링에 의해 학습되어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장지우, 2005; Eisenberg, 1992; Waxler, 1979)와 일치하였다. 이로써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부모의 자녀는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많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지지가 많을수록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장지우, 2005; 하영희, 2001; Eisenberg, 1992)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바람직한 발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행동을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김유경, 2004; 정희원·김경연, 1998; 황미숙, 2005)와 일치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결혼갈등이 적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부부갈등과 친사회적 행동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간에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이 적어진다는 연구(임형아, 2004)와 일치하였으며, 부모와 자녀 간에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강덕규, 2002)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부모의 결혼갈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결과가 성별에 따라 일치되지 못하므로 추후 부모의 결혼갈등과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는 연구가 보완되어 일반화되어야 할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이 많을수록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친구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모델링을 통하여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장지우, 2005; 하영희, 2001)에 의해 지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친구관계가 청소년기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감안할 때, 친사회적 행동 경험이 많은 친구와의 접촉은 친사회적 행동 학습의 기회를 높이며 실제 친사회적 행동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성에 관계없이 친구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많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장지우, 2005; 하영희·Edwards, 2004)와 일치하며, 친구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적응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장윤정, 1996)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친구지지는 바람직한 행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친사회적 행동이 많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험의 적응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행동문제는 감소한다는 연구(이미란, 2001; 장윤정, 1996)와 유사하다. 따라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 태도 및 행동을 습득하게 되므로 교사의 영향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많았다. 이는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아진다는 연구(하영희, 2001)와 일치한다. 이로써

학교생활만족도는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았으나 남학생의 경우 학업성적과 친사회적 행동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윤경희, 1995)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성별을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므로 친사회적 행동과 학업성적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이들 간의 관계가 분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개인 변인인 공감이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관찰자인 남녀 청소년에게 대리적인 정서반응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감이 타인을 돕고자하는 행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즉 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은 타인의 정서적 아픔을 공감할 때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도움을 받는 상대방이 느끼는 기쁨,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은 단순히 논리, 이해와 추론의 인지적 능력과의 관계보다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정의적인 공감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에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중요 예측변인이 되므로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교사들은 공감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다음, 친사회적 행동은 남학생의 경우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교사지지,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자아존중감의 순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기의 친구의 중요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친구는 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대인관계의 하나이므로 주변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은 모델링과 관찰학습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은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역시 성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개인변인 중 일부변인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개인 변인 중의 인지적 요인인 친사회적 도덕추론이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정의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친사회적 도덕 갈등 상황에서의 인지적 사고 수준이 여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의 정도가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어 직접적인 논의는 어렵다. 그런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 보다 기질이나 정서적 능력 등의 정의적 요인이 발달에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최형성, 2007)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자아존중감의 정의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정의적 요인보다는 친사회적 행동에 선행되는 친사회적 도덕 판단의 인지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측된다. 그러나 인지적 요인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발달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연구가 없어 단정적인 해석은 무리라고 본다.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추진되어 좀 더 명확한 결론과 해석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교사지지가 남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교사의 관심과 긍정적인 지지는 바람직한 행동과 발달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므로 친사회적 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함양에 대한 교사지지의 중요성은 남학생의 경우 더욱 효과적 이므로 남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 훈련이나 프로그램에 교사의 참여가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언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런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따라 관련변인이 다를 수가 있으리라 추측되나 이를 분석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학년에 따른 분석이 포함되어 성별과 학년별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비교 분석이 가능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함양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여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로는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의 관계 및 그 경로를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의 경험정도는 자기 보고에 의존되어 측정되고 있다.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의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자기보고와 함께 또래보고, 교사관찰이 병행되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덕귀(2002).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와 육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옥 · 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2), 299-317.
- 권윤아(1997). **실업계 여고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및 가출 유형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 · 하영희(1998). **사회화 요인들이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친사회적 및 규칙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 후기, 69-93.
- 김유경(2004). **청소년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인지적 특성-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선(1998).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운(2005). **중·고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 및 이타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 환경변인 및 적용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정(2002).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미정(2006). **또래괴롭힘 완화요인의 탐색-주변또래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종란(1999). **초등학생들의 친사회적 도덕 판단, 사회적 행동, 인기도와 부모의 양육방식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진(2000).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아동간 책읽기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경희(199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창의성, 친사회적 행동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2002). **청소년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란(2001). **아동의 교사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정(2001). **아동의 다중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복(199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경(2002). **과제의 특성에 따른 유아와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의사결정 및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옥경 · 이순형(1996). 과제의 부담과 종류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 추론과 친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17(1), 275-288.
- 이현정(1997).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개인적 변인 및 음란매체 접촉도와 성비행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형아(2004). **부부갈등과 부부역할만족도가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애(1986). **가정 환경적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 인과모형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윤정(1996). **아동 ·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지우(2005).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 변인, 또래 변인 및 감정이입의 인과적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원 · 김경연(1998). 가정 환경적 변인 및 아동 개인적 변인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 성과 연령에 따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1), 103-117.
- 최형성(2007).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아동의 자아존중감 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28(3), 77-100.
- 하영희(2001). **청소년의 도덕행동에 관한 관련변인 연구 -권장 행동과 금지행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영희 · Carolyn Pope Edwards(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간의 인과 관계, *아동학회지*, 25(2), 121-132.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 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준수(2000). **개인특성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미숙(2005).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Tal, D.(1976). *Prosocial Behavior*. N.Y.: John Wiley & Sons.
- Bar-Tal, D., Raviv, A., & Goldberg, M.m(1982). Helping behavior among preschool children : An observational study. *Child Development*, 53, 393-402.
- Carlo, G., Koller, S.H., Eisenberg, N., Da Silva, M.S., & Frohlich, C.B.(1996). A crossnational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prosocial moral reasoning gender role orientations, and 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231-240.
- Davis, M. H.(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ubow, F., & Ullman, C.(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Eisenberg-Berg, N., & Hand, M.(1979). The relationship of preschooler's reasoning about prosocial moral conflicts to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0, 356-363.
- Eisenberg-Berg(1979a). Development of Children's Prosocial Moral Judg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5(2), 128-137.
- Eisenberg-Berg(1979b). Relationship of prosocial moral reasoning to altruism, political liberalism, intellig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5, 87-89.
- Eisenberg, N(1982).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Y.: Academic Press.
- Eisenberg, N(1983). Prosocial developmental in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In R. N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 Newbury Park, CA: Sage.
- Eisenberg, N(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behavior*.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isenberg, N.(1992). *The caring child*. : Harvard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 Miller, P. A.(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 91-119.
- Eisenberg, N., & Mussen, P. H.(1991).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 Miller, P. A., shell, R., McNalley, S.C Shea, C.(1991). Pro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7, 849-857.
- Eisenberg, N., & Faber, R.A.(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non (Serieo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Y.: Wiley.
- Eron, L. D., & Huesmann, C. R.(1986). The role of television in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D. Olweus, J. Block, & M. Radke-Yarrow(eds.), *Development of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r*. Orlando. FC : Academic-Press.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1992). Acce-

- 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 T. & Conger, R. D.(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l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2), 333-350.
- Hoffman, M. L.(1981). Is altruism part of Human nature? *Journal o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121-137.
- Krebs, D. C. & Van Hestern, F.(1994). The development of altruism : Towards an integrative model. *Developmental Review*, 14, 103-158.
- Paulhus, L.(1992). Predictors of prosocial behavior among inmates. *Journal of Social Psycholgy*, 132, 233-244.
- Radke-Yarrow, M., Zahn-Waxler, C., & Chapman, M.(1983). Children's prosocial dispositions and behavior. In: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4th. ed.)*. N.Y.: Wiley.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 Shaffer, D.(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 Adolescence(5th ed.)*, Thomson/ Learning.
- Underwood, B., & Moore, B.(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43-173.
- Vasta, R., Miller, S. A. & Ellis, S.(2004). *Child Psychology (4th ed)*.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Waxler, C. Z.(1979). Child 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itiations toward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50, 319-330.
- White, G, M. Immediate and deferred effects of model observation and guided or unguided rehearsal on donating and stea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139-148. 1972.

접수 일 : 2007년 11월 14일

심사완료일 : 2008년 02월 25일